



지역 칠십인과 스테이크 회장 메시지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가 남겨준 유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배덕수 장로(지역 칠십인)

이 번 청년 대회는 여느 청년 대회 때마다 그러했듯이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노고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시온으로 모이자'는 기치 아래 이 땅의 시온 건설과 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참석했던 청년들의 준비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함께 참여했던 분들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대단했습니다.

선지자와 주님의 종들의 권유에 따라 학업을 미루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하며, 개인의 일정들을 조정하여

성공적으로 끝난 '2009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 (이하 청년 대회)를 뒤돌아보며 지역 칠십인인 배덕수 장로와 대회 부위원장이었던 서울 남스테이크의 허병석 회장이 간증을 전해왔다. 참석 인원 천여 명, 해외에서 참석한 청년들, 홈스테이, 성인 회원들의 자원봉사 등 역사적인 이번 대회를 설명하는 말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배덕수 장로와 허병석 회장이 전하는 이 청년 대회의 본질은 사랑과 봉사, 그리고 화합과 감사다.

참석한, 특히 외국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온 청년들의 신앙은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중에도 시기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에게 미안합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들 모두는 한마음일 것입니다.

청년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희생해 주신 자원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약별 아래서 피켓을 들고 안내하신 어르신과 청소년들, 무더운 날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가족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천국의 한 자락을 나누어 주셨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수 백 명의 밥을 준비하면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으셨던 자매님들과, 휴가를 내고, 식사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봉사 하셨던 지도자님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가슴 뭉클하게 눈시울을 적시는 사랑.

먼 거리의 이동과 벽찬 활동으로 피곤했을 텐데도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세미나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기된 청년들을 보는 것은 경이롭고 마음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청년들과 봉사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년 대회는 성인 회원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 회원들은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대회장 곳곳에서 청년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희생했다.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3박 4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는 대회 내내 충만한 주님의 영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선지자 엘마는 “이 생은 시험의 상태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엘마서 12:24)고 가르쳤고,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롬 8:5)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의 선지자인 벨슨 장로는 “각 나라는 그 백성을 위한 집합 장소입니다…… 한국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한국입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의로운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시온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청년 대회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모이는 일을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우리가 할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한국 땅에 모여 시온을 건설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권고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 각 개인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신의 인도로 알게 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



주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허병석 회장(서울 남 스테이크 회장, 대회 부위원장)

지난 8월 12일 아침,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은 이미 전국에서 새벽에 출발하여 도착한 수백 명의 청년들과 함께 온 지도자들, 그리고 대회 준비를 위해 바빠 움직이는 운영본부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1856년 5월 영국 리버풀 항에 모였던 수 천 명의 후기 성도들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로 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배에 올랐습니다. “시온으로 모이라”라는 선지자의 말씀은 153년 전 영국과 웨일즈, 그리고 인근 여러 곳에 파견된 사도들의 영감어린 음성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머나먼 길을 걸어서 총 여행 기간이 9개월이나 되는 그 길을, 초기의 개척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걸었습니다. 이는 훗날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굳건히 설 수 있고, 그에 속한 수많은 충실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는 참으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 즉 우리의 본향을 뜻하는 “시온으로 모이라”라는 새로운 권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날의 메시지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인생의 향로를 결정짓는 참으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니파이는 그의 아들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오직 우리 영혼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나의 시험의 날의 마지막 때에 너희 모두에게 이 몇 마디 말을 하였느니, 나는 선지자의 말을 좇아 좋은 편을 택하였으며, 나는 너희 영혼의 복리 이외에는 아무 다른 목적도 갖고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청년 대회는 바로 그 지침과 가르침 위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선지자와 지도자의 말씀과 권고에 따라 의로운 결심을 하고, 인생의 향로를 수정한 많은 청년들과 그들을 지지해 준 부모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한없는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청년 대회에는 바로 그런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훗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음을 느끼고, 또한 그러한 특권을 접할 수 있음에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순종심과 신앙과 충실한 삶을 주님께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되심을 간증드립니다. ■



간증은 계속된다

‘2009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의 가장 큰 수확은 대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마음에 뜨거운 간증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세 마나를 들으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활동을 하면서 한여름의 물 한 모금 같은 귀중한 간증을 얻었다. 그것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청년 대회를 통해 새로운 간증을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뜨거웠던 3박 4일을 추억하며, 청년들과 성인 회원들의 간증을 소개한다.

청년들

바로 그곳이 시온이었습니



청년 대회가 끝난 지금, 아직도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조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한강의 기적 탐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간증을 전하는 미션을 수행했을 때, 또 숲에 가서 기도했을 때, 제 마음은 간증과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청년 대회 주제인 “시온으로 모이자”를 봤을 때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대회를 하는 동안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곳이 시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봉춘 형제,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영을 느꼈던 대회



작년 4월에 침례를 받고, 청년 대회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청년 대회는 저에게 무척이나 특별했습니다. 바로 ‘청년 합창단’ 지휘를 했기 때문입니다. 노파심에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기도 했었고, 부족한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이 함께 하시고, 꼭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영을 느꼈습니다. 제 신앙은 그만큼 더 강해졌습니다.

류경아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만남과 화합의 장



저희 대구 스테이크 청년들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여행이었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그리고 무엇보다 쿡 장로님을 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이번 청년 대회가 만남과 화합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점은 많지만 공통된 믿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시온으로 모여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청년 대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손봉규 형제, 대구 스테이크, 종리 와드

확신과 믿음을 더하고



저는 올해 1월에 개종한 신회원입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개종하셨고, 뒤이어 제가 개종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창 바쁘게 보내고 있을 때 청년 대회에서 발표할

창작 무용을 지도해 보면 어떨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한국 무용인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보다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설레고 좋았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청년 대회는 그 힘들을 잊게 할 만큼 멋진 모임이었습니다. 특히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찾고, 교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현영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시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BYU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는 한국에서 청년 대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저희 스테이크에서 하는 청년 대회 발표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결혼에 대한 연극인 '라디오 쇼'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성전 결혼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외에는 많은 한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 모든 청년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재능을 나누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시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청년 대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최승훈 형제,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청년 대회에 참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훈련은 모두 연기됐고, 제한됐던 휴가도 통제가 풀렸습니다. 단지 소망으로만 남을 뻔 했던 일생일세의 기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회에 참석하면서 기대감을 하나하나 만족시켜 나갔습니다. 대회 때 본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그리고 지도자 부부들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번의 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간증과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최준규 형제, 현재 이등병으로 군복무 중이다

몰몬경에 간증을 적어 넣으며



저는 청년 대회 활동 중에서 몰몬경에 간증을 적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몰몬경을 읽게 될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할까 생각하며 간증을 적는 동안 선교사 시절의 영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고 숙고해서 적었고, 제가 몰몬경을 통해서 얻었던 그 간증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허효진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교회를 키워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제주 지방부에서는 저를 포함해 세 명의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먼 지역이니만큼

서울까지의 거리도, 그리고 여비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님들께서 꼭 가야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별다른 망설임 없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이번 청년 대회에 모인 친구들을 보면서, 또한 여러 강사님들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홍창민 형제,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성인 회원들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청년 대회 기간 동안 안내를 맡아서 자원 봉사를 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영등포 와드로 향하는 길목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본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자원봉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희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님의 권유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청년 대회에서 봉사 활동을 할 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함께 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인지라 잠시 망설였지만 청년 대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큰딸은 "다른 사람도 많은데 엄마가 꼭 해야 해?"라고 물었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봉사하기를 꺼려한다면, 먼 곳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슬플 거야.” 제 말에 자녀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고, 저는 3박 4일 동안 즐겁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여름 날씨라 덥기도 하고 햇살도 뜨거웠지만 기꺼이 봉사하는 다른 분들과 함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대회를 보면서, 사도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이는 수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김영아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열정과 감동



청년 대회 준비 위원회로부터 세미나를 해 줄 것을 부탁받은 후 2개월 동안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이 제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임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 사업은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요, 성전 결혼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옛날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청년 대회를 보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샘이 되고, 샘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전 세계 한인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 그 열정과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비록 세미나 강사로 참석했지만 이번 청년 대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원몽 형제,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홈스테이를 제공하며



강동 와드에는 총 스무 명의 청년들이 홈스테일로

배정되었습니다. 청년 대회 때 홈스테이를 제공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기에 설레어 하는 사람도 많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는 모든 회원들이 기꺼이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덟 명의 청년들이 묵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말씀에 따르고 청년 대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미국에서 유학 중인 두 딸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어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위원회에서는 홈스테이 가정에 누가 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해 주었고, 청년들 또한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소수의 독신들이 모여서 모임 하는 모습을 보며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 대회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과 염려를 떨칠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 임하는 청년들의 열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보여주는 친화력, 진지한 태도, 탐구하는 자세 등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신앙이 아니라 홀로서는 신앙을 갖도록 청년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었다는 점이

이 대회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최상업 형제, 서울 영동 스테이크, 강동 와드

희생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청년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로부터 청년 대회 세미나 부탁을 받은 후,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저의 입을 통해 말씀하도록 해 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다음의 것들을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젊은이들은 전세에서도 충실하고 선택된 특별한 영들이었고, 이 마지막 시기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와 불경기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 주님께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를 더하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청년 대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훌륭한 교회이고, 의롭고 용감한 젊은이들이 많기에 교회의 미래는 아주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나이가 든 복음의 1세대들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희생이 하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최수영 형제,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소개: 주님의 영광

2009년 1월부터 한국인 선교사들도 미국 프로보 MTC(Missionary Training Center: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프로보 MTC 한국어 지부 회장단에서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신용인 형제가 한국의 성도들, 특히 선교 사업을 준비 중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보 MTC를 소개하는 글을 보내왔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프로보 MTC의 상세한 정보와 함께 간증이 담긴 신용인 형제의 글을 소개한다.

프로보 MTC는?

프로보 MTC는 1961년 12월 14일에 선교사들을 위한 스페인어 훈련소로 시작하였고, 1975년에 LTM(Language Training 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하와이 주와 아이다호 주에 있던 선교사 훈련부서들을 BYU-프로보에 통합하였다.

현재 이름인 선교사 훈련원(Missionary Training Center: MTC)으로 바뀐 것은 1978년이다. 프로보 MTC는 언어에 제한 없이 훈련하는 전반적인 선교사 훈련원이 되었으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이

역사적인 건물을 헌납했다.

프로보 MTC는 프로보 성전과 BYU-프로보 사이에 있는 부지에 세워졌다. 이 세 곳은 삼각을 이루고 있으며 교회의 중요한 핵심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재의 Provo MTC는 입구 중앙에 위치한 윌포드 우드럽 사무 관리실 건물을 비롯하여 선교사들의 교실, 숙소, 식당, 강당, 이발소, 서점, 우체국, 체육관 등 총 20개의 건물이 있다. 최고 2,800명의 선교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매년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는다. MTC 안에는 약 130여 명의 정직원과 550여명의 임시 직원이 일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비롯하여 약 1,000명의 BYU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외에 수 천 명의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

MTC 안에는 선교부 회장단과 두 개의 지방부 회장단이 있으며, 두 지방부 산하에는 60개의 지부가 있다. 60개의 지부 중에 한국어 지부가 있으며,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한국어로 부름 받은 한국 선교사들이 이 지부에 소속된다. 현재 한국 지부 회장단에는 렉스 칼슨 회장, 짐 스미스

형제, 그리고 서울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두 소속의 신용인 형제가 봉사를 하고 있다.

프로보 MTC에서는 52개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모국어로 봉사하는 선교사는 3주, 모국어와 연관성이 많은 언어는 9주, 모국어와 연관성이 적은 언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12주 동안 훈련을 받는다.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은 3주간 훈련을 받고 한국 선교부로 부임을 한다.

모든 선교사들은 오전 6시 30분에 기상해서 밤 10시 30분에 취침하기까지 매우 바쁜 스케줄로 움직인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지침서로 하여 훈련 받고, 경전을 중심으로 영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가르치는 훈련을 받으며, 구도자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연습은 물론, 교회에 대해 전화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답을 하면서 직접 선교 사업을 하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선교사들은 언어 공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주일에 하루인 '준비 날(P-day)'에는 프로보 성전에서 성전 의식을 받기도 한다.

일요일에는 각 지부에서 신권회(상호부조회는 MTC에 있는 자매 선교사들 전체가 따로 모임)와 성찬식을



신권의 힘이 가득한 그곳

가지며, 매주 화요일 일곱 시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강당에 모여서 총관리 역원과 함께 영적 모임을 갖는다. MTC에는 합창단도 있다. 수 백 명의 선교사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후에 함께 합창 연습을 한다. 2,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곳은 프로보 MTC뿐이며, 이때는 신권의 힘과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느낀다. 금식 주에는 MTC 선교부 회장의 감리 하에 MTC에 있는 전체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부 대회를 가진다.

올해 1월부터 한국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한국 출신 선교사들도 프로보 MTC에서 3주간 훈련을 받아왔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3주 훈련 기간 중에 하루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 건물, 방문자 센터, 컨퍼런스 센터 등을 방문 하여 교회 본부의 운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일요일에는 프로보 지역에 있는 미국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시간이 될 경우 BYU-프로보를 돌아보기도 한다. 한 와드 안에 수 백 명이 참석하는 성찬식을 처음 경험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이다.

MTC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랄프 더블류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현재 2,200명의 선교사들이 MTC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곧 2,500명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MTC는 1,000명이나 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52개의 외국어를 가르칠 귀환 선교사들이 교사로 필요하다 보니, BYU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프로보 지역의 스테이크 회장단, 전 선교부 회장단 등 매우 유능하고 경륜이 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언어 훈련소에서 우리 MTC를 벤치마킹해 가지만, 우리 MTC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선교사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의 강한 믿음과 열정은 물론 신권 지도자들의 희생 정신이 중요한 성공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인 형제의 간증

선교 사업은 다른 분들을 위해 예수님의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예수님과 회복된 복음에 대해 더 확고한 간증을 얻고 개인적인 개종을 경험합니다. 선교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눈물 어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MTC에서 2,000여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순수한 주님의 영과 신권의 힘은 다른 곳에서 느끼기 힘든 경험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젊은이들을 보면 힐라맨의 2,000명의 용사들을 연상하게 되며, 저는 이렇게 많은 훌륭한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로부터의 계시와 영감을 통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많은 젊은 형제 자매들은 물론 경험이 많으신 정년 퇴직 나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직접 선교 사업에 참여하시면 많은 영적인 경험과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을 드립니다.



신용인 형제 부부와 한국인 장로들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됨

지난 2009년 8월 30일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초기 개척자 추모 음악 노년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는 교회의 원로들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대구, 부산, 마산에서 올라온 합창단이 함께 해서 자리를 빛냈다. 모임은 봉천 와드의 김지은 자매의 독창으로 시작되었다. 독창이 끝난 후에 초기 교회의 발전과 그에 따른 개척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영상물 감상이 있었다. 영상물 감상이 끝난 후에는 김정숙 자매와 박병규 형제의 말씀이 이어졌다. 김정숙 자매는 고(故) 김호직 박사의 딸로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병규 형제는 김호직 박사를 추억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 설립 당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말씀 뒤에는 워트니스 중창단이 '저녁 닥쳐와'와 '알렐루야'를 불렀다. 대구 스테이크 합창단은 '성도들이 큰 시험이 닥쳐와도'와 'I love you, Lord'를 합창했다. 대구 스테이크 합창단의 순서 뒤에는 김신환 형제의 독창이 이어졌다. 김신환 형제는 찬송가 96장, '내 주를 가까이'를 불렀다. 가슴을 울리는 김신환 형제의 목소리는 영등포 와드 예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인상 형제는 김신환 형제의 독창 후에 연단에 올라 담백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김호직 박사를 추도하면서 쓴 글을 낭독했고, 그에 답이라도 하듯 '성도의 빛' 창간호에 실린 김호직 박사의 말씀을 전했다. 한인상 형제의 말씀 후에는 다시 합창이 이어졌다. 부산 스테이크 합창단이 힘찬 멜로디가 돋보이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와 찬송가 59장, '주여 큰 폭풍우 일고'를 합창했다. '전승가'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 마산 스테이크 합창단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힘차게 회원들의 마음을 노래로 채워나갔다. 마지막 무대는 온누리 합창단이었다. '포레 레퀴엠 1번 키리에', '포레 레퀴엠 7번 In Prardisum', 'I often go walkling', 'Our Savior's Love' 등 네 곡을 선보인 온누리 합창단은 원숙한 솜씨로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희 장로는 마지막 말씀을 하며 여러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김호직 박사님의 가족들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훌륭한 모범에 감사합니다." 최윤희 장로는 당부의 말과 함께 말씀을 마쳤다. "신앙의 바탕 위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후대들이 잘 배워서 이 교회를 더 힘껏 키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8명/해외 2명



박종혁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흥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이원기 장로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대전 선교부



안기범 장로
서울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대전 선교부



이지민 장로
부산 스테이크
김해 와드
서울 서 선교부



한인상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부산 선교부



정인선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부산 선교부



안다연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대전 선교부



정준탁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강동 와드
캘리포니아
샌페르난도 선교부



이셋별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대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김천 지부 지부 회장: 김종국(전임: 김창호)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감독: 최창덕(전임: 우봉구)